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욕망하며 꿈꾸는 모든 것은 이미 전생에 언젠가 해본 일이라고...
그러니 부러워할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아파할 것도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4일 5층 대강당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축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불교 학생회 한마음회, 한의과대학 불교학생회 심우회 청년불자학생들이 함께 하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대학생 전법포교의 의미를 더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봉축법회는 1부에서 육법공양, 설법, 환우선물 증정 등을 진행하고, 2부는 1층 로비로 이동해 헌화, 헌다, 관불식을 진행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은 “병원은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어느 곳보다 절실한 곳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로 나아가는 길이다. 중생이 행복하면 우리역시 행복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구성원 모두가 소통과 화합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길 바란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포교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고양시와 ‘찾아가는 홈스피탈’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1일 고양특례시와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찾아가는 홈스피탈(Home+Hospital)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홈스피탈 사업은 퇴원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병원에서 지정하면, 거주지 보건소가 집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6개 병원이 동참했다.

이번 협약은 노령화시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임금 및 단체교섭 상건례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권범선 병원장과 박노봉 부위원장 등 노사 측 위원들이 만나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산별현장교섭 상건례를 진행했다.

박노봉 부위원장은 “올해 동국대병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더욱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기대되며, 노조도 그에 걸맞게 이해의 폭을 넓혀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적절한 보상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병원 상황이 어렵지만 서로 합심하여 올해 교섭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병리과, ‘정도관리 인증’ 및 ‘수탁검사기관 인증’ 획득

병리과는 3일 대한병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병리과 및 수탁검사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현장실사를 받았다.

병리과는 현장실사와 서류부분 평가 결과에서 92.3점의 우수한 점수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번 현장인증실사를 발판으로 검사표준화, 오류 감소를 통해 병리진단 향상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장은 “질관리 시스템이 국내최고 수준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총평했다.

‘정도관리 인증’과 ‘수탁검사기관 인증’ 현장실사는 운영일반, 병리진단, 조직병리 등 총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심사문항이 854개, 기본배점이 2,958점이나 되는 방대한 실사로 2,958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공감존중 프로젝트 동국간호 날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에서는 12일 ‘제52회 국제 간호사의 날(International Nurses Day)’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날 행사에 모인 간호사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축하합니다’의 인사로 오늘 주인공인 동료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고,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뜻을 모으기 위해 행사장을 민트(민심을 트다)컬러로 꾸몄다.

이어서 이순행 한국간호윤리학회장을 초청하여 ‘간호사의 생명윤리의식’의 주제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을 사례별로 들여다보는 특강을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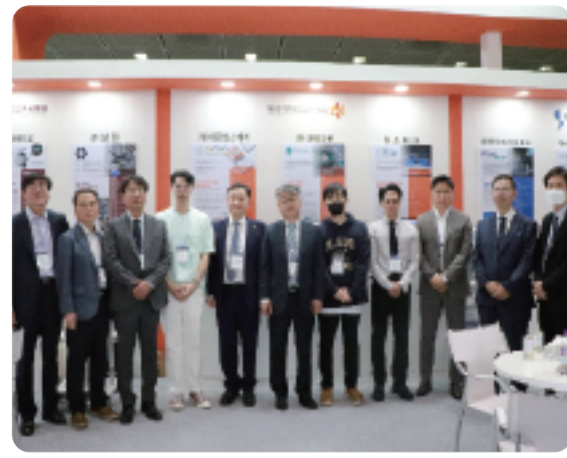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BIO KOREA 2023’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BIO KOREA 2023’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BIO KOREA 2023’에서 기업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케다제약, 바스젠바이오, 인핸드플러스, Collaborative Drug Discovery(CDD) 등 다수의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도입을 위해 행사 기간 중 권범선 병원장, 김광기 기획처장, 고기환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본원 홍보부스를 방문하고 최신 스마트 의료서비스동향과 기술 현황을 참관했다.

이번 박람회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51개국 730여 곳의 참가 기업과 약 2만 9400여 명의 관람객이 참관했다.



불기2567년 연등회 행사에 의료지원 및 기금, 홍보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불기2567 연등회에 의료지원 및 기금, 홍보부스 운영과 연등행렬에 참여했다

20일 동국대학교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에는 권범선 병원장과 김동일 한방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을 비롯한 교직원봉사자 연우회, 교직원등 130여 명이 동참하여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했다. 또한 의료 지원과 구급차를 동행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했고, 21일 조계사앞 전통 문화마당에는 부스를 마련하여 의료지원과 함께 기금모연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병원부스를 방문하여 기금모연에 금일봉을 동참하고 격려했다.

